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소고

강건우(姜建佑)

I. 머리말

II. 출토지와 존명

III. 발원자, 조성시기 그리고 조성배경

IV. 맺음말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 학예연구사

주요 논저:

「실상사 철불연구」, 『불교미술사학』15(201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로프노르·누란 출토품의 현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로프노르·누란 출토품』(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6);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재고」, 『한국고대사탐구』27(2017) 등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철조여래좌상은 한동안 미등록 상태로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가 최근 본관9976으로 유물번호가 새롭게 변경되었다. 이 철조여래좌상은 ‘포천 철불’로 불리는 철조여래좌상(본관9975)과 함께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백운리 홍룡사 일대에서 발견된 불상이다. 필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와 유리건판 사진 등을 비교·검토하여 두 구의 철조여래좌상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 1925년 12월 17일에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철조여래좌상은 높이가 105cm, 어깨폭은 57cm, 무릎폭은 77cm에 이르고, 偏袒右肩의 착의법에 옷주름은 물결무늬식으로 새겨서 유려하다. 철조여래좌상의 얼굴은 타원형으로 이목구비의 묘사가 잘 남아있다. 양감 있는 볼에 넓게 타원형을 그린 안와, 수직으로 길게 뻗은 눈, 짧은 코와 도톰한 입술은 9세기에 제작된 전라북도 남원 實相寺 철조여래좌상, 경북 예천 寒天寺 철조여래좌상, 강원도 동해시 三和寺 철조여래좌상 등과 유사하다. 또한 결가부좌한 다리와 편단우견의 착의법, 물결무늬식 옷주름은 8세기 석굴암 본존불을 연상시킬 만큼 조각수법이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철조여래좌상의 존명은 유리건판 사진(원판번호 M442-2, M442-7)을 통해 알 수 있다.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오른쪽 손바닥은 위를 향하고, 왼쪽 손바닥으로 藥器를 받치고 있다. 지금까지 원주출토 철조약사좌상(본관1970)만이 철로 만든 유일한 약사불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약기를 든 철조약사여래좌상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철조여래좌상은 혜철의 제자 道詵(827~898)이 밀교신앙의 영향을 받아 사찰을 보호하고 국토를裨補하기 위해 9세기경에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홍룡사의 전신인 내원사에는 도선이 백운산 등 중요한 세 곳을 택하여 비보사원을 세우고 다시 약사여래삼존상을 조성한 후 사원에 봉안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선암사중수비」에는 도선이 비보를 위해 도량을 세우고 철불 등을 조성했다고 전한다.

홍룡사가 소재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고려시대에 藥寺라는 사찰이 창건되었다는 점에서, 이 일대는 약사도량과 관련된 지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철조약사여래좌상,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사진, 도선, 비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소고

강건우(姜建佑)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日帝強占期 朝鮮總督府博物館에서 국내 문화재를 조사하고 수집했음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일반에 공개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와 유리전판 사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당시 기록된 자료는 문화재의 성격과 소장 경위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6.25 전쟁의 발발과 해당 문화재에 대한 기록의不在로 인해 아직도 조사·연구되지 못한 문화재가 전하는 것도 사실이다. 문화재를 조사할 때 관련 자료 없이 문화재의 現狀만을 보고 그 성격을 파악한다는 게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철조불상의 경우, 국내에 비교할 만한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다른 분야의 미술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¹

1 한국 철불 연구의 대표적인 선구자로 최성은 교수와 최인선 교수를 들 수 있다. 崔聖銀, 「高麗初期 廣州鐵佛坐像 研究」, 『佛教美術研究』2(1995), pp.22-45; 최성은, 『철불』(서울: 대원사, 1996); 崔聖銀, 「羅末麗初 中部地域 鐵佛의 樣式系譜」, 『講座 美術史』8(1996), pp.21-35; 崔聖銀, 「羅末麗初 抱川出土 鐵佛坐像 研究」, 『미술자료』61(1998), pp.1-20; 崔聖銀, 「신라하대 實相寺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고찰」, 『韓國史學報』54(2014), pp.157-190; 崔仁善, 「韓國 鐵佛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 두 교수의 논문에 앞서 이인영, 「고려시대 철불상의 고찰」, 『미술사학보』2(1989), pp.51-98과 강우방, 「統一新羅鐵佛과 高麗鐵佛의 編年試論」, 『미술자료』41(1988), pp.1-31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근래에는 선종산문의 철불을 연구한 몇 편의 논문들이 연이어 소개되었다. 姜建佑, 「實相寺 鐵佛 研究」, 『불교미술사학』15(2013), pp.71-100; 박성연,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13); 유시내, 「삼화사 철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14); 徐志敏, 「三和寺 鐵造盧舍那佛像의 圖像의 意義와 造成背景에 관한 考察」, 『新羅文化』49(2017), pp.65-101. 최근에는 백운암 철불을 분석하여 고려 초기 충주지역에서 철불이 조성되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하정민, 「충주지역 고려 초기 철불과 그 의의」, 『인문과학연구논총』40(2019), pp.301-337.



도 1. 철조여래좌상, 높이 105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9976)



도 2. 철조여래좌상 뒷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철조여래좌상도 그러한 예 중에 하나이다(도 1). 이 철조여래좌상은 높이가 105cm, 어깨폭은 57cm, 무릎폭은 77cm에 이르고, 偏袒右肩의 착의법에 옷주름은 물결무늬식으로 새겨서 유려하며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에 올린吉祥坐를 하고 있다. 철조여래좌상의 얼굴은 타원형으로 이목구비의 묘사가 잘 남아있다. 두 눈은 수평으로 길게 새겨졌고 코는 눈에 비해 짧게 묘사되었다.

입은 콧방울의 너비만큼 작고 가늘며 콧바위가 둥글고 두껍다. 머리는 현재 나발이 없는 민머리이고 정수리 부분이 도드라지게 위로 튀어나왔다. 반면에 목이 짧아 전반적으로 다소 경직된 느낌을 준다.

철조여래좌상의 앞면은 목 부분을 제외하고는 분할선이 잘 보이지 않는 반면, 옆면과 뒷면은 수직의 분할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도 2). 여타의 예배대상과 마찬가지로 정면을 중시하는 불상의 특징으로 인해, 이 철조여래좌상 역시 옆면과 뒷면보다는 정면에 주안점을 두고 조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철조여래좌상의 표면에는 흘러나온 쇠물의 자국인지 아니면 보완재로 사용한 황토의 잔재인지를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흔적이 상의 앞면과 뒷면에 남아있다. 현재 철조여래좌상의 양손은 결실된 상태이며 양팔은 아래를 향해 내렸다.

이 철조여래좌상은 입수 후 한동안 미등록 상태로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필자는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공개 사업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리건판 공개 사업 등의 성과에 힘입어 그동안 미등록 상태로 있던 철조여래좌상을 조사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다.²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관내 불교미술 전공자들과 공식적으로 몇 차례 의견을 나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근 철조여래좌상의 유물번호가 본관9976으로 변경되었다.³

2 이 소장품을 실사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데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허형욱 학예연구관, 유물관리부 천주현 학예연구관의 도움이 컸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3 이번 철조여래좌상의 조사 관련하여 관내·외 선행연구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순우 선생은 그의 글에서 철조여래좌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초의 실마리를 제시했고, 국립중앙박물관 장상훈 학예연구관은 1958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소장품 카드 정리 사업 이래의 오류를 발견하고 당시 미등록 문화재인 철조여래좌상의 유물번호가 원래는 본관9976이라고 간략하게 언급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순우,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 하나』(서울: 하늘재, 2002), pp.117-164와 장상훈, 『日帝強占期 朝鮮總督府博物館의 大型 石造文化財 收集과 展示』,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조문화재』(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7), p.20의 주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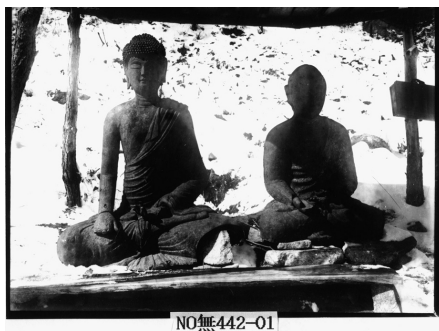
이하 본문은 일제강점기 문화재의 입수 경위가 기록된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과 현재의 유물카드, 불상의 재질 분석을 위한 과학적 조사 등을 통해 철조여래좌상이 본관9976으로 유물번호가 수정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단서를 과거의 시점, 즉 유물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리하여 서술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철조여래좌상의 출토지와 존명, 발원자, 제작시기, 조성배경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불교조각사 연구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II. 출토지와 존명

먼저 철조여래좌상 관련하여 한 장의 유리건판 사진(원판번호 M442-6)이 주목된다. 이 사진을 보면 커다란 바위산 아래 작은 원두막에 보관된 불좌상 두 구가 있다(도 3). 불좌상을 근경에서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원판번호 M442-1)을 보면 두 구의 불좌상은 나무로 만든 지붕 아래에 나란히 놓여 있고, 불좌상 아래에 돌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도 4). 왼쪽의 불상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실에 전시 중인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본관9975)이다(도 5). 이른바 ‘포천 철불’로 불리는 왼쪽의 철조여래좌상(본관9975)은 현재 개성 고려박물관에 소장된 瑞雲寺(傳 적조사지) 철조여래좌상과 형태가 비슷하며 여러 차례 일반에 공개되었다.⁴ 철조여래좌상(본관9975)의 유물카드를 살펴보면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백운리, 1925년 12월 17일 발견품(尹萬明), 100엔’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어 유리건판 사진(원판번호 M442-6) 명칭인 ‘京畿 抱川 二東面 白雲洞 鐵造如來坐像’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유리건판 사진(원판번호 M442-1)의 오른쪽 철조여래좌상은 지붕의 그늘로 인해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리건판 사진의 명칭을 통해 이 불좌상 역시 철조여래좌상(본관9975)과 함께 경기 포천 이동면 백운동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두 불좌상을 나란히 배치하여 사진을 촬영했다는 점은 두 문화재의 여러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도 3. 유리건판 사진(원판번호 M442-6), 국립중앙박물관(건판22582)



도 4. 유리건판 사진(원판번호 M442-1), 국립중앙박물관(건판22577)



도 5. 철조여래좌상, 10세기, 높이 132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9975)

4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서울: 일조각, 2013), pp.9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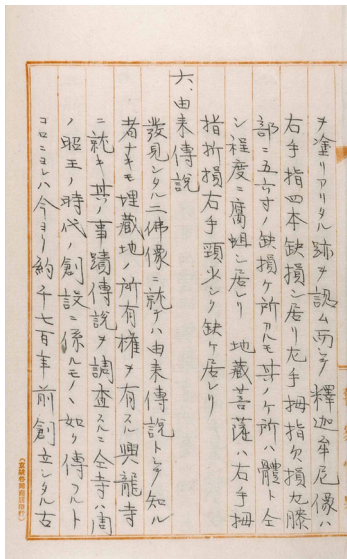
실마리이다.⁵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번호를 살펴보면 본관9975인 철조여래좌상을 중심으로 본관9973은 ‘가륜빈가 와당’, 본관9974는 ‘금동제불상(6.25 전쟁 망실)’, 본관 9976은 ‘철조여래좌상’, 본관9977은 ‘금동광배단편’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본관9973, 본관9977은 철조여래좌상과는 성격이 다르고 본관9976만이 동일한 재료의 불상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본관9976 유물카드에는 본관9975 유물카드와 동일하게 ‘京畿道 抱川 二東面 白雲洞, 尹萬明 發見, 1925年 12月 17日, 價格 100.00圓’으로 기록되어 두 문화재 간의 공통점이 확인된다. 즉 본관9976은 본관9975와 함께 1925년 12월 17일에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진 것이다.

일제강점기 문화재 입수 경위를 살펴볼 수 있는 조선총독부 공문서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이 확인된다. ‘조선총독부 공문서-발견-大正 13년(1924)도 경기도 포천군 興龍寺 발견 鐵佛과 운송(이하 흥룡사 발견 철불과 운송)’ 문건을 살펴보면,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흥룡사에서 보관중인 매장물 철제 좌물 2체(1개는 높이 4尺 5寸, 또 하나는 높이 3尺 5寸)에 대한 결재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를 통해 두 구의 불상이 철로 만들어졌고, 봉안처가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에 소재한 흥룡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흥룡사 발견 철불과 운송’ 문건에는 두 철불상의 존명에 대한 기록도 나온다. 이 문건에는 두 철불의 존명을 釋迦牟尼佛(4尺5寸)과 地藏菩薩(3尺5寸)로 각각 비정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오기 이전인 1924년 9월 17일자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毎日申報」의 기사와 1924년 9월 19일자 「東亞日報」의 기사를 참조하여 두 불상의 존명을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매일신보」는 ‘一千五百年前の 金佛二個發掘, 꿈에서 부처의 감동을 받고 우연히 나갔다가 발굴해’라고 기사화했는데,⁶ 아쉽게도 현재 남아있는 신문 지면의 상태가 좋지 않아 발견 당시 두 금불을 각각 석가모니불과 지장보살이라고 언급한 점 이외에는 다른 기사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비교적 기사 내용이 잘 남아있다. 동아일보는 ‘抱川에 地藏菩薩 석가모니도 나왔다’라고 보도하면서,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백운동에 사는 윤만명 씨가 지난 8월 30일에 밭에서 철로 만든 불상을 발견했고 이 일대를 ‘흥룡



도 6. 조선총독부 공문서, 1924년(大正 13년)도 경기도 포천군 興龍寺 발견 鐵佛과 운송 건

5 포천 백운동에서 출토된 철불이 두 구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순우, 앞의 책(2002), pp.145-147 참조.

6 매일신보 기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연속자료 전자저널(<https://viewer.nl.go.kr:8080/main.wviewer>, 2019년 9월 3일 확인) 참조.



도 7. 유리건판 사진(원판번호 M442-1)의 왼쪽 불상 세부



도 8. 유리건판 사진(원판번호 M442-1)의 왼쪽 불상 세부

사'의 사지로 언급했다.⁷

‘흥륜사 발견 철불과 운송’ 문건 중 문화재의 상태를 기술한 내용을 보면, 석가모니불은 오른손 손가락 4개가 파손되었고 왼손은 엄지손가락이 파손되었다고 기록되었는데(도 6), 이는 유리건판 사진(원판번호 M442-1)의 철조여래좌상(본관9975)의 손의 상태와 완전히 일치한다(도 7). 또한 지장보살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파손되었다는 기록도 철조여래좌상의 오른손 특징과 동일한 점으로 볼 때(도 8)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에서 지칭하는 바와 같은 상임을 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1930년 景福宮 勤政殿 회랑에서 두 불상이 나란히 전시되었다는 점에서(도 9),⁸ 이 상들은 동일한 절차를 거쳐 1925년 12월 17일에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졌음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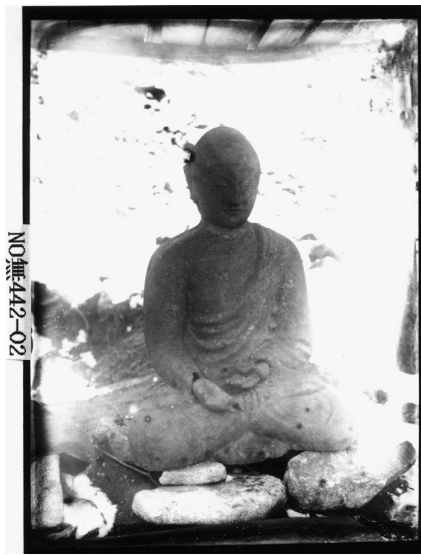


도 9. 경복궁 근정전 회랑 전시 광경

그런데 ‘흥륜사 발견 철불과 운송’ 문건에서 지장보살로 언급한 철조여래좌상과 관련하여 한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직원들은 한 구의 불상 존명을 지장보살로 보고했는데, 이는 잘못된 견해로 보인다. 아마도 발견 당시 불상의 머리에 나발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건을 쓰거나 민머리의 지장보살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철조여래좌상의 머리에는 별도로 제작한 나발을 붙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 윗부분의 두께가 얇다는 점에서 이마의 발제선에 맞춰 나발을 마치 관모처럼 만들어 씌웠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7 동아일보 기사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24-09-19&officeId=00020&pageNo=1>, 2019년 9월 3일 확인) 참조; 이순우,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 둘』(서울: 하늘재, 2003), pp.356-358.

8 小川晴陽 撮影, 『朝鮮古美術大觀』3(奈良: 飛鳥園, 1930).



도 10. 유리건판 사진(원판번호 M442-2), 국립중앙박물관(건판22578)

철조여래좌상의 존명은 유리건판 사진(원판번호 M442-2, M442-7)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유리건판 사진(원판번호 M442-2, M442-7)을 보면 오른쪽 손바닥은 위를 향하고, 왼쪽 손바닥으로 藥器를 받치고 있다(도 10). 이는 새로운 철조약사여래상의 확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이다. 즉 지금까지 원주 출토 철조약사좌상(본관1970)만이 철로 만든 유일한 약사불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⁹ 이번에 약기를 든 철조약사여래좌상을 새롭게 확인한 것이다.¹⁰

한편 철조여래좌상의 표면에 옷칠을 한 흔적이 잘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불상을 鍍金할 때에는 표면에 옷칠을 하고, 옷이 굳어갈 때 금박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불상의 개금한 상태만을 보고 원 재료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옷칠 작업 시에는 안료가 묻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붓을 펴서 불상 표면을 여러 번 얇게 칠해야 한다. 옷칠을 하고 금박을 입히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며, 대형 불상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력을 가진 후원자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른 시기의 철불 중에서 조성 당시 금박을 입힌 사례가 충남 서산시 보원사지의 「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978년)」에 전한다.

대사(坦文)께서 문인들에게 이르기를 성군이 나를 스승이라 일컬으므로, 나는 부처님의 가호로 임금께 보답하려 하노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부처님을 존중한 공덕으로 옥황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삼존금불상을 조성하였다.(괄호는 필자)¹¹

위의 坦文(900~975)이 조성한 금불상은 금으로 도금한 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으로 판명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이다.¹²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의 보원사지 철불을 보면 불상 겉면에서 금으로 도금한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즉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비」의 기록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9 원주 출토 철조약사불좌상을 나말여초에 제작된 불상으로 보는 견해는 최성은, 앞의 책(2013), p.110 참조.

10 팔목과 분리가 가능한 약기를 든 손은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철조여래좌상 손 모양과 지물을 모방해서 완성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 “大師告門人曰 聖君 致我稱師 報君以佛 奉爲祝玉皇之萬壽 鑄金像之三尊” 「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 원문과 한글 해석은 李智冠 편,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2(서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5), p.79, p.99.

12 보원사 철불에 금박을 입혔기 때문에 비문에 금상으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우방, 앞의 논문(1988), pp.23-29 참조.

상의 도금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철조여래좌상의 표면에 도금한 흔적이 남아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밀한 조사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 이동형 엑스선 형광분석기(XRF)로 철조여래좌상의 표면을 비파괴 성분 분석했고, 그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¹³

표 1. 철조여래좌상 성분 분석 결과

유물명	분석 위치		검출 원소(wt%)					추정 재질
			철(Fe)	금(Au)	규소(Si)	알루미늄(Al)	티타늄(Ti)	
철조여래좌상	턱	바탕	94.39	0.00	3.50	2.11	0.00	철에 금박
	가슴 위	바탕	94.17	0.00	3.84	1.99	0.00	
	왼쪽 어깨	금박	86.89	5.81	4.95	2.35	0.00	
	오른팔	금박	84.91	6.62	6.28	1.90	0.30	
	법의	금박	86.69	7.88	3.66	1.78	0.00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철조여래좌상의 왼쪽 어깨와 법의 등에서 금(Au)의 성분비가 5.81~7.88%로 확인된다(도 11, 도 12). 육안으로도 확인이 될 만큼 금박과 옷칠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중세기 철조여래좌상의 표면에 금박을 입힌 실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철조여래좌상은 경기도 포천군 흥룡사에서 출토된 금박으로 개금한 약사여래좌상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철조여래좌상을 금박으로 도금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후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불상의 발원자는 누구이며, 언제, 무슨 이유로 철조불상을 조성한 것일까?



도 11. 철조여래좌상 법의 세부



도 12. 철조여래좌상 왼쪽 어깨 세부

13 철조여래좌상의 비파괴 성분 분석은 보존과학부 노지현 학예연구사가 진행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Ⅲ. 발원자, 조성시기 그리고 조성배경

철조여래좌상은 철조여래좌상(본관9975)과 함께 홍룡사에 봉안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룡사는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백운산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奉先寺의 말사이다. 『奉先本末寺誌』, 『興龍寺』의 附寺名沿革에는 “道詵 國師 初創 時에 白雲山 內院寺라 稱하든 것을 泰天化主 重創 時에 이르러 白雲山 白雲寺라 改稱했으며 近古에 다시 白雲山 黑龍寺라 再次 改稱했다가 寺法承認 際에 白雲山 興龍寺라 施行되다”라고 기록했다.¹⁴ 이를 통해 홍룡사의 사명이 이전에 내원사, 백운사, 흑룡사로 불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러 사명 중 道詵(827~898)이 초창한 당시의 사명인 내원사가 주목된다.

흥미롭게도 『白雲山內院寺事跡』에는 도선이 백운산 등 중요한 세 곳을 택하여 비보사원을 세우고 다시 약사여래삼존상을 조성하여 사원에 봉안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¹⁵ 즉 도선은 홍룡사의 전신인 내원사에 약사여래삼존상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도선이 활동했던 9세기 중후반에 조성된 철불과 철조여래좌상을 비교해보면, 양감 있는 불에 넓게 타원형을 그린 안와, 수직으로 길게 뻗은 눈, 짧은 코와 도톰한 입술 등에서 전라북도 남원 實相寺 철조여래좌상, 경북 예천 寒天寺 철조여래좌상, 강원도 동해시 三和寺 철조여래좌상 등과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결가부좌한 다리와 편단우견의 착의법, 물결무늬식 옷주름은 8세기 석굴암 본존불을 연상시킬 만큼 조각수법이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경기도 양평 舍那寺 철조여래좌상과도 착의법, 양 팔의 위치, 불상의 높이 등이 비슷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철조여래좌상과 사나사 철조여래좌상은 모두 석굴암 본존불 계통의 편단우견이고, 상의 높이도 각각 약 105cm, 109~120cm이다.¹⁶ 다만 조각수법을 보면 사나사 철조여래좌상이 이 철조여래좌상에 비해 옷주름의 선적인 특성이 더 강한데, 이는 10세기 조각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조각수법은 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과 원주 출토 철조여래좌상에서도 확인된다.

철조여래좌상의 조성 배경과 관련해서는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비문 893년, 건립 924년)』와 『仙巖寺重修碑(1707년)』의 기록이 주목된다.

곧 1장 6척되는 철불상을 주조하여 銑을 발라, 이에 절을 수호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였다……기와로 인 처마가 사방으로 이어지도록 일으켜 지세를 진압케 하고, 쇠로 만든 불상 2구를 주조하여 절을 호위하도록 하였다.¹⁷

14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奉先本末寺誌』, 『傳燈本末寺誌 奉先寺末寺誌』(서울: 亞細亞文化史 영인본, 1978), p.199.

15 “敬造藥師如來三尊以安三所寺 時有瑞應九重休祥 上日此豈佛道醫艾之力也 白雲者非獨三處之中爲最 四山之中超出者也” 朝鮮總督府 編, 『朝鮮寺刹史料』 上(서울: 문헌, 2010), p.37; 허형욱, 『한국 고대의 약사여래 신앙과 도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2017), p.113 재인용. 『백운산내원사사적』은 강희 45년(1706년) 이전, 즉 조선시대의 기록이지만 도선의 활동과 관련하여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 사나사 철불의 높이는 다음의 책을 참고했다. 최성은, 앞의 책(1996), p.74; 최성은, 앞의 책(2013), p.80.

17 “乃鑄丈六玄金像傳之以銑爰用鑢仁字導冥路……遂率先於衆防後爲基起瓦口四注以壓之鑄鐵像二軀以衛之至”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남동신 역)』,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서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pp.205-206.

古記를 보면 도선이 당나라에 공부하러 가서 大德을 만나 裨補가 되는 곳을 모두 3천 5백 개소를 얻었다. 그중에 호남에 三巖이 있으니 朗州의 龍巖寺와 睢陽의 雲巖寺와 또 하나가 승평의 선암사이니 대개 가서 자리를 본 것이다. 선암사는 부의 治所에서 서쪽으로 40리이니 曹溪山의 虎穴의 응달에 있는데 옆으로 세워 열 길이나 된다. 그 위에 옛날 선인의 도끼자루가 문드러진 자취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 큰 도량을 세워 그 동쪽에 鐵佛 한 구와 寶塔 둘, 浮圖 셋이 있고 石鐘이 있어 높이 10여 척에 크기가 몇 아름이나 되었다.¹⁸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에서 銑은 금을 의미하는데, 즉 철을 수호하기 위해 금으로 도금한 철 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¹⁹ 「선암사중수비」에는 도선이 비보를 위해 도량을 세우고 철불 등을 조성했다고 한다.²⁰ 위의 두 비문의 내용과 앞서 언급한 나말여초 불상과의 비교를 고려할 때, 도선은 사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를 비보하기 위해 9세기 후반경 철조여래좌상을 조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선이 여러 불보살 중에서 약사불상을 조성하게 된 데에는 그의 스승인 慧徹(785~861)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혜철은 일찍이 당나라에 들어가 西堂智藏(735~814)에게 密印을 전해 받았다.²¹ 서당지장은 선승이지만 밀교승으로도 알려진 승려로서 지장, 혜철, 도선 등의 法系的 관계성으로 보아 도선도 밀교신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²² 도선이 약사신앙과 밀교적 변용 속에서 백운산 등 세 곳에 사찰을 창건하고 약사여래상을 봉안한 것은 그의 밀교화된 약사신앙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²³ 특히 도선이 창건한 내원사, 즉 홍릉사가 소재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는 고려시대에 藥寺라는 사찰이 창건된 지역이다. 또한 현재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와 강원도 철원군 서면의 경계를 藥寺洞溪谷으로 부르고 또한 삼층석탑이 전하는 약사터가 남아있다는 점에서²⁴ 이 일대가 약사도량과 관련한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 “古記詠之西學於唐也曰遇大德焉所冷 裨補之區凡三千有五百而湖南之三巖在焉曰朗州之龍巖曰睢陽之雲巖而其一爲昇平之仙巖蓋歸而相之巖在府治西四十里曹溪之山虎穴之陰側立十尋 其上有古仙人爛柯之跡云於是立大道場其東鐵佛一寶塔二浮圖三有石鐘高十餘尺大數圍” 『仙巖寺重修碑』, 원문과 한글 해석은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_third/user/frame.jsp?View=search&No=4&ksmno=1809, 2019년 8월 24일 확인) 참조.

19 사찰에 항거하는 비불교도들이나 도적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거대한 철불을 조성했다는 견해가 있다. 崔仁善, 앞의 논문(1998), pp.38-39. 이 외에 지역 민심을 화유할 목적으로 철불을 주조했다는 견해도 있다. 조범환, 「신라하대 洪陟 선사의 實相山門 개창과 鐵佛 조성」, 『신라사학보』6(2006), pp.61-63, 특히 주 49 참조.

20 도선 국사는 비보사찰로 순천 선암사, 광양 운암사, 영암 용암사 등을 창건했고, 그중 순천 선암사의 철불은 지세를 누르기 위한 비보물로 조성되어 현재 선암사 각황전에 전한다. 김진숙, 「고려시대의 비보사찰과 불상조성」, 『佛敎研究』42(2015), p.265.

21 “大師知志既堅稟性最悟一識如舊密傳心印於是禪師” 『大安寺寂忍禪師照輪清淨塔碑』, 원문과 한글 해석은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_third/user/frame.jsp?View=search&No=4&ksmno=2818, 2019년 8월 24일 확인) 참조.

22 서운길, 「도선국사의 생애와 사상」, 『道詠研究』(서울: 民族社, 1999), p.33.

23 주 15의 「백운산내원사사적」 참조. 도선을 선승이자 밀교승으로 보기도 한다. 서운길, 앞의 책(1999), p.34.

24 抱川文化院, 『抱川의 地名由來集』(抱川: 抱川文化院, 2006), pp.457-469.

IV. 맺음말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공문서와 유리건판 사진 등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철조여래좌상의 원래 유물번호가 현재의 본관 9976임을 밝혔다. 동시에 이 철조여래좌상의 출토지와 존명, 발원자, 제작시기, 조성배경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본고에서 소개한 철조여래좌상은 일제강점기 소위 ‘포천 철불’로 불리는 철조여래좌상(본관9975)과 함께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백운리 홍룡사 일대에서 발견되어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진 불상이다. 이 철조여래좌상은 혜철의 제자 도선이 밀교신앙에 영향을 받아 9세기 후반에 조성한 약사여래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찰을 보호하고 국토를 비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철조여래좌상은 현재 전하는 철로 만든 약사여래상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예이며, 불상 표면에 옷칠과 금박이 잘 남아있어 예부터 철조여래좌상을 조성한 후 금박으로 개금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본고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또 하나의 포천 철조여래좌상을 학계에 소개한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다만 본고에서 지면 관계로 본관9976 철조여래좌상의 제작기법과 양식적 특징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한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전혀 다른 양식의 두 철조불상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미술사적 의의와 그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못했다. 이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투고일 2019. 9. 19. | 심사개시일 2019. 10. 25. | 게재 확정일 2019. 11. 22. |

참고문헌

【보고서·단행본】

- 이순우,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 하나』, 서울: 하늘재, 2002.
_____,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 둘』, 서울: 하늘재, 2003.
李智冠 편,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2, 서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5.
朝鮮總督府 編, 『韓國寺刹史料』 上, 서울: 문현, 2010.
최성은, 『철불』, 서울: 대원사, 1996.
_____,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서울: 일조각, 2013.
抱川文化院, 『抱川の地名由來集』, 抱川: 抱川文化院, 200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Ⅲ, 서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傳燈本末寺誌 奉先寺末寺誌』, 서울: 亞細亞文化史, 1978.

【논문】

- 강우방, 「統一新羅鐵佛과 高麗鐵佛의 編年試論」, 『미술자료』 41, 1988.
김진숙, 「고려시대의 비보사탑과 불상조성」, 『佛教研究』 42, 2015.
서운길, 「도선국사의 생애와 사상」, 『道說研究』, 서울: 民族社, 1999.
장상훈, 「日帝強占期 朝鮮總督府博物館의 大型 石造文化財 收集과 展示」,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조문화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7.
조변환, 「신라시대 洪陟 선사의 實相山門 개장과 鐵佛 조성」, 『신라사학보』 6, 2006.
崔仁善, 「韓國 鐵佛 研究」, 한국고원대학교 대학원 역사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1998.
허형욱, 「한국 고대의 약사여래 신앙과 도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일본어】

- 小川晴陽 撮影, 『朝鮮古美術大觀』 3, 奈良: 飛鳥園, 1930.

An Inquiry into the Iron Seated Buddha Excavated from Pocheon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Kang Kunwoo*

The Iron Seated Buddha sculpture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d long sat unregistered in storage at the museum. However, a new accession number “bon9976” has recently been assigned to it. This sculpture was excavated from the neighborhood of Heungnyongsa Temple in Baekun-ri, Yidong-myeon, Pocheon-gun, Gyeonggi-do Province together with another Iron Seated Buddha sculpture(bon9975) called “Iron Buddha from Pocheon.” A comparison and examination of Gelatin Dry Plate and official documents from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Museum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have revealed that these two Iron Buddha sculptures were transferred to the Museum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n December 17, 1925.

The Iron Seated Buddha sculpture(bon9976) has a height of 105 centimeters, width at the shoulders of 57 centimeters, and width at the knee of 77 centimeters. The Buddha is wearing a robe with rippling drapery folds and the right shoulder exposed. He is seated in the position called gilsangjwa(the seat of good fortune) in which the left foot is placed over the right thigh. The features of the Buddha’s oval face are prominently sculpted. The voluminous cheeks, eye sockets in a large oval shape, slanted eyes, short nose, and plump lips can also be found in other ninth-century Iron Seated Buddha sculptures at Silsangsa Temple in Namwon, Jeollanam-do Province, Hancheonsa Temple in Yecheon, Gyeongsangbuk-do Province, and Samhwasa Temple in Donghae-si, Gangwon-do Province. Moreover, its crossed legs, robe exposing the right shoulder, and rippling drapery folds suggest that this sculpture might have been modeled after the main Buddha sculpture of the Seokguram Grotto from the eighth century.

The identity of this Iron Seated Buddha can be determined using the Gelatin Dry Plate(M442-2, M442-7). In them, the Buddha has its right palm facing upwards and holds a medicine jar on its left palm. Until now, the Iron Seated Bhaiṣajyagura(Medicine) Buddha(bon1970) excavated from Wonju has been considered the sole example of an iron Medicine Buddha sculpture. However, this

* Associate Curator, Asian Arts Division, National Museum of Korea

newly registered Iron Seated Buddha turns out to be a Medicine Buddha holding a medicine jar. Furthermore, it serves as valuable material since traces of gilding and lacquering clearly remain on its surface.

This Iron Seated Buddha sculpture (bon9976) is presumed to have been produced around the ninth century under the influence of Esoteric Buddhism by the Monk Doseon(827~898), a disciple of the Monk Hyecheol, to protect the temple and help the country overcome geographical shortcomings. According to the records stored at Naewonsa Temple(later Heungnyongsa Temple), Doseon selected three significant sites, including Baegunsan Mountain, built “protector” temples, created the Bhaisajyagura Buddha triad, and enshrined them at the temples. Moreover,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on the restoration of Seonamsa Temple states that Doseon constructed temples and produced iron Buddha sculptures to help the country surmount certain geographical shortcomings.

Heungnyongsa Temple is located in Dopyeong-ri, Yidong-myeon, Pocheon-si, Gyeonggi-do Province. This region appears to have been related to rituals directed to the Medicine Buddha since Yaksa Temple(literally, “the temple of medicine”) was built here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the Yaksa Temple site with its three-story stone pagoda and Yaksadong Valley still exist in Dopyeong-ri.

Keywords: Iron Seated Bhaisajyagura(Medicine) Buddha, Official Documents of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Museum, Gelatin Dry Plate Photo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Monk Doseon, Helping a Country Overcome Geographical Shortcomings